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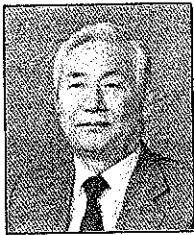
AUTHOR 차영배

TITLE 개혁신앙으로 드러져야 할 참된 예배

IN 월간고신

73호 (10, 1987): 30-35.

개혁신앙로 드러져야 할 참된 예배



차 영 배
칼빈대학교 고려신학
교를 졸업했다. 화란
칼빈신학교에서 공부
했다. 현재 충신대학
신대원 교수.

예배학을 전공하지 못

한 필자로서는 주어진 제목에 관하여 무슨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월권인 것 같아서 망서리다가, 지난번에도 원고청탁을 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응하지 못한 일이 있는 기억이 되살아나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순응키로 하였다. 그러나 개혁주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청탁을 받았을 때, "개혁주의적 예배"로 이해하였고, 이것을 다시 나름대로 고쳐서 위에 정해진 제목으로 손질을 하고 보니, 약간 구미가 당기는 같아 펜을 들긴 했으나, 속에 든 것이 없어서 막연할 뿐이다.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은 바로 개혁신앙에 입각한 참된 예배의 원리가 무엇일까 라는 것인데 이것은 곧 개혁신학의 원리와 직결될 수 있다고 느껴지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참된 예배의 원리

요 4 : 23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하신 주 예수께서는 계속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 : 24)고 확실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전후 사정을 고려에 놓으면서 본문을 분석하면, 참된 예배의 원리도 별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① 참된 예배는 진리 안에서 또는 진리로써 드러져야 한다. "εν αληθεια"(엔 알레테이아)를 "진정으로"라고 한역한 것은 오역인 것으로 보인다. 진정이 아니라 진리이다.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18 : 37)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기도 한다(요 8 : 32, 14 : 6). 우리

인간의 "진정"이 아니라, 독생자로 말미암아 계시된 진리, 곧 복음 안에서 또는 복음으로써 드러지는 예배라야만 참된 예배 곧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복음에서 이탈된 자들이 은혜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드러지고 있었던 손할례당이며 바울은 이들을 개들 또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였고(빌립보 3 : 2), 승천하신 주께서는 거짓된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모임)라고 하셨다(계 3 : 9).

구약을 읽어도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드러지는 예배는 아무런 엄격한 예배라도 바로 그 인간적인 엄격 때문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는 아니다. 금식을 자랑하며, 십일조를 엄격히 계산하여 드리고, 안식일을 "엄수"한다 할지라도 성전마당만 밝는 것 밖에 안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무거운 짐이 된다. 참된 예배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밝은 복음으로 진리 안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드러져야 한다.

② 참된 예배는 성령으로 드러져야 한다. "εν πνευματι"(엔 프누마티)가 "신령"으로 한역되었는데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요 3 : 5에 있는 πνευματος(프누마토스)의 경우 "거룩한"이란 형용사

도 없고 정관사도 없는데 성령이라고 번역하면서 유독 여기서만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신령이라고 번역할 필요가 없지는가?

여하튼 참된 예배는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드러져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이시며 주님도 영이시고, 성령은 물론 영이시므로(요 4 : 24, 고후 3 : 17)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드러져야만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성령으로 감사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경배를 드러야만 참으로, 신본주의적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나 우상 앞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들 안에서 성령으로 드러지는 경배, 이것을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또 거기에 함께 하신다.

④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다. 이 산이 저 산보다 특별하다거나,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당을 지나치게 꾸미는 것은 벌써 이 "ubique"(우비꾸베)의 원리에 어긋난다. 예배처소의 보편성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매이지 않는다.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행전 7:48-51)라고 설교할 때, 청중들이 이를 갈며 일어나 돌로써 그를 쳐죽였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갈 4:29).

신약시대는 옛 언약의 시대와 같이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성령과 진리로써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고 하셨다(요 4:23).

요컨대, 복음의 진리와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라야만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다.

2. 개혁신앙으로 드러지는 예배

그러면 개혁신앙에 입각한 예배는 어떠한 자세로써 드러져야 하는가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그것은 무엇보다 좌우로 지우쳐서는 안될 것이다.

① 로마교적인 예전주의(禮典主義)나 사제주의(司祭主義)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세의 현상으로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딤후 3:5).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면 자연히 예전주의로 떨어져 형식적인 예배와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인도자의 허세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은혜의 수단에 의존하여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은혜를 무시한다. 이것이 심하면 심지어 주술적인 미신에 사로잡히기까지 타락한다.

일례를 든다면, 청소년들의 “캠프화이어”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붙여 놓고, 각자의 죄를 적은 종이를 붙태워 버림으로써 죄가 없어졌다는니, 혹은 “거룩한 불이여” 운운하는 시를 낭송케 하는 것들은 완전히 미신에 사로잡힌 극단적인 행동인데, 이러한 일들이 교신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나 있다면 속히 회개할 수록 유익하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만 이루어진다(Sola fide). 십자가 모양에 석유를 뿌려 붙인 것은 보혈이 아니다.

교회당마다 십자가를 높이 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된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가능하나, 교회당 안에 강대상이나 그 뒤에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벽에 붙여 놓는 것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눈에 보는 것으로 섬기지 않고, 하늘의 지성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하다.

교회당을 지나치게 꾸미는 것도 모두 잘못된 것이다. 까운을 입는 것, 강대상이나 의자를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것, 아래 위를 구별하여 강대상을 2중으로 놓는 것, 높은 강대상에는 오직 목사나 장로만 오르는 것처럼 은근히 위세를 과시하는 것, 심지어 구약시대처럼 무슨 지성소 비슷하게 꾸미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지성소는 하늘에 있다(히 4:16)

더구나 강대상은 제단이 아니다. 찬미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참된 제사이다(히 13:15-16). 지나치게 기교를 자랑하는 찬양도 문제다. 모든 교

인들이 비록 곡조는 단순하지만 “항상 예수로 말미암는 찬미”가 넘치는 것.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당은 격식을 갖추어 예배를 한시간 정도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요, 경배하는 곳이다. 경배하는 전면(前面)에 큰 강대상이나, 십자가 모양이나, 촛불을 켜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의자에 앉아서 경배할 수 있으나 이때금 설 수도 있고, 또 마루바닥에 엎드리기도 해야 한다.

② 세세례주의적 신비주의적 경배는 삼가야 한다.

이것은 은혜의 수단들 곧 세례, 성찬, 말씀을 무시하고, 속에 기록된 말씀에 치중하는 것인데, 함께 모이는 것을 꺼려 홀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하는 것만을 일삼지 말고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교회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기피하는 자가 있으면 장로와 목사는 곧 심방하여 그 이유를 묻고,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참으로 하나님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 일까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오직 말씀”, 좋은 생각이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곧 신비주의이다. 그러나 말씀도 은혜의 “수단”이다. “Sola Scriptura”는 주격이 아니고, 탈격(oblativus)이므로 “오직 말씀으로써” 설교하고, 신학

말세의 현상으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면 자연히 예전주의로 떨어져 형식적인 예배와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허세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을 세우며, 경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누가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쓰는 주인공가에 따라서 상황이 아주 달라진다.

두말할 것 없이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쓰여지는 종이다. 성령께서 쓰시는 좌우에 날선 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렘 6:17, 히 4:12).

이에 어긋난 예배는 인본주의적, 외식하는 예배이거나, 혹은 신비주의적 예배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중간은 없다. 미지근한 예배를 친다면 중간이 있긴 하나(계 3:16),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명이 같이 우리의 판결과 풀수까지 쪼개는 일이 없는 점잖은 설교, 말씀만 나타나면 졸다가 예화가 나타나면 눈을 뜨는 교인들, 이러한 교회는 죽은지 오래된 외식하는 자들로 가득찬 교회이다. 점잖게 앉아 조용히 묵상인지 절반은 졸면서 눈을 지긋이 감고, 순서에 따라 피동적으로 순응(?)하는 지루한 예배순서, 더구나 헌금시간에 들려오는 광고 속에 자기 이름이 들리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다가 예배 끝났다면 점잖게 돌아오는 것, 이래도 좋은가? 인도자에게 책임이 크다. 옛날에는 통성기도 때 땅바닥을 쳤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1907년에 그러했고 해방후의 6·25동란 속에서도 그러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소동이 있는 비정상적인 것같은 예배가 실상인즉 정상적이다. 우리에게 죄가 없고, 다 회개했기 때문에 또 진리의 노선, 정통 노선에 섰기 때문에 점잖게 드러야 한다는 이론이나 신학이 성립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예배당의 의자들을 모두 없애고, 땅바닥에 꿇어 앉아 통곡하는 것이 주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참된 경배가 될 것이다. 거저장스러운 까운은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로 옮겨야 한다. 찬양을 드릴 때도 높은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어야 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찬양대석에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앉아야 할 것이다. 물론 집사들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교인들의 투표로 몇사람만 뽑아서 구제의 일을 맡겨야 하거나, 다그런건 아니지만 목사의 전권으로 수시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례에 쓰여질 물, 성찬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중 강단을 만들어 권위를 세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모두 고쳐야 한다. 새벽기도 때에 쓰여지는 강단이 필요하지만 본 강대상이 높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강대상 앞에 서야만 설교가 되는것도 아니다. 새벽기도실이 따로 있으면 더욱 좋은데, 마음을 다하고,

개혁신앙에 입각한 참된 예배는 종교개혁 당시 천년 이상이나 묵은 전통보다 오직 성경에 의하여 잘못된 전통을 과감히 버리고……

지체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아주 중요하다.

말을 맺으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을 재의코자 한다. 예배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가 바로 고전14장33절 이라는 것 곧 “하나님은 어지러운 의 하나님이나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 이시라”는 것인데, 이것은 찬송과 설교와 제사와 방언과 방언통역함과 영들분변함 등을 질서대로 화평스럽게 하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고전 14:26-32). 이것은 점잖게 묵상하는 신비주의적* 예배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임에 틀림없다. 빌립보3장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덧입혀지는 은혜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3:1-9). 그리스도의 의와 이에 근거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 곧 아브라함의 축복(갈 3:14)이 넘치는 가운데 드러지는 예배는 성령께서 제1 사회자가 되시고, 사람은 제2 사회자가 되는 그러한 예배,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이 주관하시는 경

*중세 신비주의자들이나 근세 정속주의자들은 불교의 중도의 좌선처럼 조용한 묵상을 즐겼다. 이것이 곧 신비주의다.

배가 참된 예배일 것이다(행 13:1-3). 기도는 다 이렇게 “주께서” 혹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여 놓고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방언이나 큰 애통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보수 신학이나 칼빈주의 정통이니 혹은 건전한 신앙운하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막는 설교를 하여 찬물을 끼얹는다. 어떤 신학생이 집회를 인도했는데 중고등학생들 속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방언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결국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지만 이래도 좋은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 영국의 Packer 박사는 조용한 예배보다는 차라리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어지러운 것 같은 예배가 더 낫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다. 판매 박은 후보의 순서대로 항상 그대로 되풀이 되는 기계적인 예배가 딱딱하기 짝이 없고, 연보광이나 십일조와 주일성수를 자랑삼는 일로 소일하는 것,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강하는 일 등은 소멸하는 불 같은 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곱 영이 그 눈이신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불붙듯 타오르는 삼위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는 없다. 교회의 머리가 그러하시면, 그 지체들도 그 진액을 받아 마땅히 불붙어져야 한다. 반제는 불로 응답을 받는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여져야 그 불붙는 마음들이 모여서 드러지는 경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께서 흥향하시는 기도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그 영광이 넘칠 것이다. 영광이 떠난, 불기둥이 없는 삭막한 교회는 결국 그 촛대가 옮기워질 것이다.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교회 중 해방후 가장 먼저 영계의 눈이 뜨여진 교회인 고신교단은 이제 그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서야 할 것이다. 요컨대, 개혁신앙에 입각한 참된 예배는 종교개혁 당시 천년 이상이나 묵은 전통보다 오직 성경에 의하여(Sola Scriptura) 잘못된 전통을 과감히 버리고, 십자가의 모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믿는 유일한 신앙을 가지고(sola fide),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각양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모든 교인들이 차별없이 의롭다함을 입으며, 누구에게나 갈급한 자에게는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체를 다하며, 힘을 다하며 간구하는 심령을 받아서 드리는 기도와 찬미가 넘치며 불덩이 같은 설교로써 온 교회가 어떠한 역경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최소한의 연보인 십일조로써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바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눈앞에 별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원통히 회개하며, 오직 은혜로써만 감사함이 넘치는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성부 성자 및 성령의 축복이 넘치는 가운데 끝나는 예배이어야 할 것이다. ❀